

넷이벤트 2008, "기술 트렌드를 논하다"

김원선 기자 기자 ansoriny@kyung.com.co.kr ~ 2008년 5월호

넷이벤트 아태지역 기자간담회 말레이시아 캄카위에서 열려

[말레이시아 캄카위 현지취재] 전 세계적인 네트워크 관련 세미나 행사인 넷이벤트 아태지역 기자 간담회가 말레이시아 캄카위 안다만 호텔에서 열렸다. 이번 넷이벤트 기자간담회에는 한국은 물론 일본, 중국, 호주, 싱가포르, 인도 등 아태지역 기자 100여명이 참석했다.



키노트 스피치에서 아몰 미트라(Amol Mitra) HP 프로커브 아태지역 마케팅 디렉터는 "4가지 트렌드가 세상을 변화시킬 것"이라면서 "네트워크의 변화, 가상화, 보안, 에지 인터페이스가 IT에 있어 중요한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고 지적했다. 아몰 디렉터는 또 "이러한 트렌드의 변화에 맞춰 네트워크는 더 이상 스피드가 아닌 얼마나 더 현명하게 움직이느냐가 중요해지고 있다. 결과적으로 정보를 흡수할 수 있는 능력을 배가시켜 결정을 빨리함으로써 생산력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것이 시장에서 기업들에게 경쟁력을 가져다 줄 것"이라고 말했다. 정보 기반의 기업이 되기 위해서는 가장 큰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보안문제의 해결이 급선무 과제이며, 아울러 안정된 네트워크와 유연한 인프라의 구축이 필수적으로 요구되고 있다고 역설했다.

영화 <마이너리티 리포트>를 인용하면서 네트워크의 중요성도 강조했다. 아몰 디렉터는 "<마이너리티 리포트>에서처럼 아이디어를 팽창하면 기술은 더욱 신뢰하게 된다. 비밀번호는 신뢰할 수 없으며 더 이상 입력하지 않아도 접속할 수 있을 만큼 네트워크의 신뢰성은 더욱 발전해 나갈 것"이라며 네트워크의 변화를 설명했다.

넷이벤트TV의 에디토리얼 디렉터인 마넵 두바시(Manek Dubash)가 진행한 키노트 인터뷰에서는 '줄이없는 사무실이 구현될 것인가?'의 주제로 열린 토론이 벌어졌다. 이에 대해 아몰 디렉터는 "기술이 아닌 사람의 습관이 변화를 이끌 것"이라며 "지금의 변화가 눈에 보이지 않을 수도 있다. 분명 줄이없는 사무실의 구현은 기술적인 측면이 아니다. 관색하게 줄이가 없어지지는 않겠지만 문명한 건 줄이를 사용하는 일이 확실히 좋고 있고 시간이 지날수록 절감되는 것이 현실화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고 말했다.



컴퍼런스 보통 세션에서 팀 딜론(Tim Dillon) IDC 연구원은 "2007년에만 수천만 개에 달하는 개인 데이터가 도출됐다. 또 10억 명에 달하는 전체 인터넷 사용자 가운데 약 30%가 보안에 노출되어 있다. HSBC가 최근 37만 명의 고객 정보를 유출한 것이 대표적인 사례"라고 지적 하면서 "이러한 사태는 시스템과 프로세스가 잘못되어 있기 때문이다. 갈수록 침투 가능성은 넓어지고 있고 그만큼의 리스크도 커지고 있다. 그걸수록 보안은 더욱 중요해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두 번째 토론 세션에서 마이클 하워드(Michael Howard) 인포네틱스 컨설처 매널리스트는 '아시아지역에서 통신업체 운영자들의 여건들과 도전'이라는 주제로 발표하면서 "정해진 예산 내에서 통신업체 운영자들은 새로운 서비스 및 용량을 추가해야 하면서 동시에 운영 지출 비용을 절감하는 혁신을 해야 하는 도전과제를 안고 있다. 2009년부터 IP NGN이 확산되면 이러한 고민거리는 해결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IPTV나 브로드밴드 네트워크는 더 많은 사람들이 접속할수록 견련력을 갖게 된 것이라는 게 마이클 매널리스트의 주장이다. 그렇다고 과거 네트워크가 사라지지는 않을 것이며 아주 오랫동안 남으면서 동시에 NGN은 장기 간에 걸쳐 구축이 진행되는 복잡한 혁명이라고 주장했다. 스위스콤, 이탈리아텔레콤 등이 무선과 유선을 하나의 IP 네트워크로 통합하는 IP NGN의 모습을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고,

저이시 이스와라모니(Jayesh Easwararmony) 프로스트 앤 설리만 디렉터는 유무선 통신을 한 기술인 펜토셀(FemtoCell)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나섰다. "펜토셀의 표준화는 빠르게 정착되어 가고 있다. 시장 정착에 걸림돌이 되고 있는 가격적인 부담은 HDTV의 가격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것처럼 점차 완화될 것으로 본다. 펜토셀은 이제 초기 단계일 뿐이며 점차 다양한 사업모델로 구체화될 것"이라고 밝혔다.

시장조사기관 가트너의 서비스 공급업체 리서처를 담당하는 버트랜드 비라우드(Bertrand Bitaud)는 "아시아지역의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미래를 위해 많은 투자를 하고 있으며 사업을 다각화하는 게 하나의 트렌드로 자리잡고 있다. 하지만 향후 3~5년 뒤에 새로운 도전이 직면하게 될 것이다. 서비스 공급업체들은 어떤 전략을 세우는 게 이루어 질지 지금부터 생각해 봐야 한다"고 전했다.